

소식

대한신경외과학회

Vol. 22

CONTENTS

02 인사말 04 임원명단 05 학회소식 및 회무보고 12 분과학회 및 지회소식, 병원소식 15~18 퇴임사 19 "내 자식 같은 수술 도구들이죠." 순천향의대 김범태 교수
20 회원동정 21 전문의 시험 자격을 위한 안내 22 Photo Report



대한 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밤낮을 잊으시고 최상의 진료와 열정적인 연구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하고 계시는 신경외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어느새 우리 곁을 찾아온 봄기운이 지난 겨울의 묵은 때를 벗겨내고 대지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 넣어 들판과 담장에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록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4월에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해운대에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28차 춘계학술대회를 열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료계는 양적, 질적으로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system의 성장이 의료의 질적, 양적 성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기형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의료인력의 공급과잉, 전문영역의 편향, 도시집중화라는 부작용을 낳아 의료인들 간에 진료영역 다툼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 학회 회원들의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인을 향한 일방적인 매도와 오해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자긍심마저도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학회에서는 더 이상 이것을 지켜 볼 수 없어 본 학회 회원들의 자긍심과 진료 영역을 회복하고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조직하여 급만성통증의 치료와 허혈성뇌졸중 및 치매 등의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춘계학회부터 새로이 각 분야별로 Satellite Symposium을 기획하여 학문적 집중화, 분과학회의 자율성 및 경제적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여러 회원님들께서도 학회의 집행부를 믿어 주시고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서양의 석학들은 지난 20세기가 유럽과 미주로 대표되는 대서양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대표되는 태평양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견과 같이 대한민국의 국력은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며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발판으로 우리는 2013년 세계 신경외과학술대회를 유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는 미국, 중국, 터키와 함께 partnership를 형성하여 joint meeting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력 신장의 수준에 발맞추어 Global leadership을 발휘하여야 할 때입니다. 뒤쳐져 있는 아시아·태평양권 국가로 눈을 돌려 그들의 의학수준을 파악하고 과거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상기하며 그들에게도 우리 수준까지 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분야별로 젊은 신경외과의사를 초청하여 훈련시켜서 그들 나라의 신경외과 의료수준을 발전시켜 우리와 함께 세계화 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새봄, 굳게 닫혔던 창문을 활짝 열듯이 마음의 문도 함께 열어 보십시오.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도 항상 국민 의료 건강에 이바지 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항상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4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이 동 열



존경하는 대한신경외과 회원 여러분!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의연하게 진료 현장을 지키며 진료와 연구 및 봉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회원님들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3월이 다 지나가는데도 눈이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계속되며 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저희들이 모두 만나는 4월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우리를 맞아줄 것이라 기대하며, 이곳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제28차 춘계학술대회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항만 물류 도시이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 영상 도시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전시, 컨벤션 도시입니다. 특히 Welcome Reception이 열리는 해운대의 누리마루 APEC 하우스는 2005년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던 곳입니다. 누리마루의 뜻을 살펴보면 누리란 세상과 세계를 의미 하고 마루란 정상 또는 꼭대기를 말합니다. 이렇듯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 열린 토론과 화합을 이루었던 이곳에 회원님들을 모실 수 있게 되어 이 또한 더 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장 취임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했던 많은 사업 과제들 중 특별히 주력사업으로 경쟁력 강화와 권익 보호, 그리고 우리의 꿈나무인 전공의 들에게 신경외과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줄 교육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그 동안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28일 한양대에서 예상보다도 훨씬 성황리에 개최된 제1차 대한신경외과학회 급성 및 만성 통증 관련 보수교육강좌와 5월 8일과 9일에 1박 2일로 시행될 신경외과 신입 1년차 전공의 연수교육을 시작으로 이제 첫걸음들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노력들이 초석이 되어 향후 우리의 후학들이 신경외과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조그만 바램입니다.

특히 이번 28차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제1차 한국과 중국 신경외과학회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돈독히 하고 2013년 세계신경외과학회에도 대비하고자 하였으며 국내 초청 연자로는 “친구” 라는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박경택 감독을 모시어 영화에 대한 회원님들의 지식을 넓힐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Satellite Symposium 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제28차 춘계학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해 주신 이동렬회장님과 부산·울산·경남지회 김진기회장님을 비롯한 지회회원님들 그리고 본 학회 임직원들과 2,300여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4월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오 석 전

임

원

명

단

(2009~2010)

명예회장 및 고문

명예회장 임광세, 문태준, 송진언, 이인수, 김윤범, 정환영, 주정화, 최길수, 송두호, 양승렬, 정광진, 김두원, 이기찬, 이화동, 이영우, 정상섭, 최덕영, 이규창, 김승태, 이재혁

고 문 최창락, 황도윤, 한대희, 유태진, 이정철, 김영수, 김국기, 조병규, 조수호, 강준기, 변박장, 김 윤, 김형동, 김문찬, 최중언, 강삼석, 정희원, 임만빈, 박상근

대한신경외과학 연구재단 임원

이사장 최중언

이 사 한대희, 김국기, 변박장, 김문찬, 조수호, 강삼석, 최선길, 김형동, 정희원, 오석진

감 사 백민우, 임영진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

이 사 장 오석진 **회 장** 이동열

차기이사장 이규성 **차 기 회 장** 이상원

상 임 이 사 총 무-김주승, 학 술-정용구, 고 시-이상원, 수련교육-오세문, 기 획-공석, 재 무-김오룡, 보 험-임영진, 진료심의회-김재휴, 법제윤리-김태영, 홍 보-박춘근, 국제교류-이규성, 회원관리-최효진, 전산정보-윤도훈, 의료정책-여형태, 관련학회조정-고 용, 개 의 외-장일태, 김문간, 특 별-박 관, 배학근, 송시현, 이 언, 이정교, 정용태

별 정 직 학술지편집-박정윤, 교과서편찬-김영준, 학회사편찬-황성남

특별위원회 교육제도개혁-고영초, 자보업무-김영배, 의료행위관리포럼-박상근, 재정경영-백민우, 근거중심의학-정천기, 2013세계학회조직-정희원, 회칙개정연구-최하영, 경쟁력강화-허 철

감 사 정 신, 이상형

이 사 강동기, 강성돈, 고 용, 고도일, 고영초, 권창영, 김강현, 김관태, 김동규, 김명섭, 김문간, 김상진, 김성호, 김영배, 김영준, 김오룡, 김우경, 김인수, 김재휴, 김주승, 김진기, 김창진, 김태영, 김한규, 류재광, 박 관, 박상근, 박세혁, 박윤관, 박정윤, 박춘근, 박형진, 박화성, 배학근, 백민우, 변박장, 변진수, 서중근, 성주경, 송관영, 송근성, 송시현, 신용삼, 신형진, 여형태, 염진영, 오석진, 오세문, 윤도훈, 윤수한, 이 언, 이규성, 이동열, 이무섭, 이상길, 이상구, 이상원, 이승명, 이용성, 이정교, 이재혁, 이훈경, 임승철, 임영진, 장일태, 정용구, 정용태, 정의화, 정천기, 정희원, 조규용, 조창원, 최기환, 최낙원, 최하영, 최효진, 하호균, 한중우, 허 룡, 허 철, 홍승관, 홍승철, 황성남(83명)

상설위원회

총 무 위 원 회 김주승(위원장), 김재민(부위원장), 고현송, 공두식, 김세훈, 김진호, 박성춘, 박익성, 박진규, 박화성, 손병철, 심재준, 안재성, 이기택, 장재철, 장종희, 김우경(간사)

학 술 위 원 회 정용구(위원장), 김법태(부위원장), 고도일, 김명현, 김상돈, 김성호, 김영수, 나영신, 남도현, 문병관, 박재찬, 안성기, 윤영설, 이무섭, 이상원, 이정길, 전신수, 조용은, 홍석호, 임동준(간사)

학술소위원회 김상대, 윤석만, 황선철

고 시 위 원 회 이상원(위원장), 권정택, 김근수, 김성민, 김중현, 김태선, 나영신, 민경수, 박현선, 백선하, 이정진, 이영배, 장재철, 차승현, 허 룡, 황정현, 성재훈(간사)

수련교육위원회 오세문(위원장), 김동원(부위원장), 강희인, 권도훈, 김기욱, 박윤관, 백광흠, 신형진, 염진영, 이상형, 이승명, 정 신, 허필우, 황용순, 이호국(간사)

기 획 위 원 회

재 무 위 원 회 김오룡(위원장), 류재광(부위원장), 강동기, 고삼규, 김재용, 백승찬, 안정용, 양승호, 정진환, 최일승, 조원호(간사)

보 험 위 원 회 임영진(위원장), 강동기·박진규(부위원장), 고준석, 김근년, 도재원, 박현선, 방재승, 심기범, 이종오, 임병철, 허 룡, 박봉진(간사)

진료심의회위원회 김재휴(위원장), 김성민, 김성호, 문창택, 박윤관, 신용삼, 이경석, 이형중, 전상룡, 전신수, 정용태, 현동근, 홍용길

법제윤리위원회 김태영(위원장), 홍승관(부위원장), 김수한, 왕규창, 이무섭, 장진우, 최병연, 홍용길

홍 보 위 원 회 박춘근(위원장), 노성우, 김대현, 김명현, 김성호, 김 영, 성우현, 이무섭, 이승명, 이영배, 이일우, 정철규, 허재택, 황창희, 이관성(간사)

국제교류위원회 이규성(위원장), 장진우(부위원장), 김승배, 김은영, 박재찬, 박정윤, 유도성, 윤승환, 윤영설, 이일우, 전영일, 정 신, 조용준

회원관리위원회 최효진(위원장), 최기환(부위원장), 김 영, 박문선, 성주경, 송영진, 이상형, 이정길, 조성진, 조창원, 최병관, 하호균, 김무성(간사)

전산정보위원회 윤도훈(위원장), 김정훈(부위원장), 김선환, 박형기, 손문준, 조도상, 한동석, 현동근, 홍창기, 이 성(간사)

의료정책위원회 여형태(위원장), 박세혁(부위원장), 강재규, 김기욱, 김동석, 김동호, 김인수, 류재광, 문성근, 방인식, 신용삼, 이상평, 김대현(간사)

관련학회조정위원회 고 용(위원장), 윤영설(부위원장), 김법태, 김재휴, 유찬중, 조 준, 김승배(간사)

개 원 의 위 원 회 장일태(위원장), 김문찬(위원장)

별정직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 박정윤(위원장), 권택현, 김영규, 김영배, 김철진, 류정식, 문창택, 박세혁, 송근성, 심기범, 오창환, 윤수한, 이무섭, 이선일, 정천기, 주진양, 최기환, 최하영, 김상대(간사)

학회사편찬위원회 황성남(위원장), 김동석, 김세훈, 문창택, 박승원, 유 현, 이호국, 주진양, 황선철, 남택균(간사)

교과서편찬위원회 김영준(위원장), 강석구, 강신혁, 공두식, 김기정, 김대원, 김동석, 김병태, 김성호, 김영배, 김영진, 김일만, 김중현, 김중호, 박용수, 서의교, 유도성, 이상원, 이승환, 이형중, 임동준, 장인복, 장철훈, 장호열, 전형준, 정 신, 정태영, 허 룡, 현동근, 홍석호, 조준성(간사)

특별위원회

교육제도개혁위원회 고영초(위원장), 고 용, 김기욱, 김세혁, 문재근, 박봉진, 박승원, 유 현, 윤강준, 장태안, 황선철, 성재훈(간사)

자 보 업 무 위 원 회 김영배(위원장), 고 용, 김근수, 박윤관, 박진규, 박찬우, 이종오, 임재현, 최선식, 한동석, 노성우(간사)

의료행위관리포럼위원회 박상근(위원장), 임영진·정천기(부위원장), 고영초, 김동석, 김성호, 김창원, 문창택, 박승원, 박윤관, 박현선, 백민우, 손병철, 오세문, 이경진, 이상원, 이재수, 임승철, 전상룡, 정영균, 조용은, 신준재(간사)

재 정 경 영 위 원 회 백민우(위원장), 이영배(부위원장), 강성돈, 고현송, 공태식, 김동석, 김태선, 문창택, 조성민, 허 룡, 허 철, 김성림(간사)

근거중심의학위원회 정천기(위원장), 권택현, 김중호, 박봉진, 박승원, 유도성, 유 현, 이형중

2013세계학회조직위원회 정희원(위원장, 2013WFNS 회장), 고영초, 고 용, 김동호, 김문찬, 김수한, 김영배, 김오룡, 김재민, 김재휴, 김주승, 김태성, 김태영, 박 관, 박상근, 박정윤, 박춘근, 배학근, 백민우, 송시현, 여형태, 오석진, 오세문, 왕규창, 윤도훈, 윤일규, 이정석, 이규성, 이동열, 이상원, 이상호, 이승훈, 이 언, 이일우, 이재수, 이정교, 임만빈, 임영진, 정 신, 정용구, 정용태, 정천기, 조경기, 최낙원, 최중언, 최창환, 최하영, 최효진, 한대희, 한중우, 함인석, 허승근, 허 철, 황성남

총무간사 윤영설, 장종희, 김정은

재무간사 황정현, 임동준

학술간사 이상형, 전신수, 백광흠, 박철기, 김우경

회칙개정연구위원회 최하영(위원장), 강성돈, 김법태, 김성호, 박봉진, 손문준, 유찬중, 전신수, 차승현, 조 준(간사)

경쟁력강화위원회 허 철(위원장), 윤수한(부위원장), 고도일, 권택현, 노재식, 송근성, 양승민, 이상형, 이정길, 장인복, 장종희, 정영균, 조용준, 현동근, 황 금(간사)

분과학회

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박정윤(회장), 이정일(총무), 정용태(학술)(2010.03~2011.03)

뇌 종 양 학 회 김태영(회장), 김오룡(총무), 이승훈(학술)(2009.07~2010.07)

뇌 혈 관 외 과 학 회 홍승철(회장), 강성돈(총무), 허필우(학술)(2010.02~2011.02)

소아신경외과학회 신형진(회장), 김동석(총무), 나영신(학술)(2009.05~2010.05)

척추신경외과학회 임승철(회장), 윤도훈(총무), 정천기(학술)(2009.09~2010.09)

신 경 손 상 학 회 박윤관(회장), 현동근(총무), 전상룡(학술)(2009.06~2010.06)

뇌혈관내수술학회 신용삼(회장), 권오기(총무), 유도성(학술)(2009.12~2011.12)

노인신경외과학회 임영진(회장), 김성호(총무), 최창화(학술)(2010.02~2011.02)

신 경 통 증 학 회 서중근(회장), 윤영설(총무), 박정윤(학술)(2008.04~2010.04)

말 초 신 경 학 회 박세혁(회장), 조용준(총무), 김동규(학술)(2008.12~2010.11)

지 회

서울·경인지회 고영초(회장), 김주승(총무) (2010. 03~2011. 03)

대구·경북지회 강동기(회장), 김인수(총무) (2009. 12~2010. 12)

부산·울산·경남지회 김진기(회장), 김무성(총무) (2009. 12~2010. 12)

대전·충청지회 김관태(회장), 고현송(총무) (2010. 01~2010. 12)

호 남 지 회 류재광(회장), 이정길(총무) (2010. 03~2011. 03)

파견대의원 및 대표

대 한 의 학 회 평 의 원 오석진, 이규성(교체평의원)

대 한 의 사 협 회 대 의 원 오석진

대한병원협회 신임위원 오석진, 오세문(교체신임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의원 오석진, 이동열, 이규성, 정용구

세계신경외과학회 대의원 한대희, 김문찬, 최중언, 오석진, 이규성, 박정윤

아시아대양주학회 대의원 한대희, 김문찬, 최중언, 오석진, 이규성, 박정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변박장





2010년 학회 Desk Calendar 제작

2010년도 학회 desk calendar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우송하였다. 학회 desk calendar에는 2009년 춘·추계학술대회 화보와 2009년도 국내외 신경외과 관련 주요 학술대회 일정, 대한신경외과학회 중요행사 일정 및 학회 관련 기관의 연락처(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과 사무국 연락처, 각 분과학회, 지회 연락처 및 수련병원 안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2010년 제53회 전문의 자격시험 결과

제53회 전문의 자격시험 결과 신경외과는 최종 98.95%의 합격률을 보였다.

- 1) 1차 필기시험: 96명 응시 불합격 1명
- 2) 2차 구술시험: 95명 응시 전원 합격, 최종합격 95명

2009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상 수상자 명단

2009년 10월 14일(수)에서 17일(토)까지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49차 추계학술대회에서 9개 부문 영예의 학술상 수상자들이 결정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1.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상(전체): 박성현, 황성규, 이선호, 박재찬, 황정현, 함인석(경북대)
Nerve atrophy and a small cerebellopontine angle cistern in patients with trigeminal neuralgia
2. 이헌재 학술상(혈관): 김재훈, 김재민, 정진환, 백광흠, 김충현(울지대 을지병원)
Simple anterior petroclinoid fold resection in the treatment of low-lying internal carotid-posterior communicating artery aneurysms
3. 이주걸 학술상(기초): 문성근, 신용일, 김형일, 김형준, 이정옥, 이민철(원광대)
Effect of prolonged cortical stimulation differs with size of infarct after sensorimotor cortical lesions in rats
4. 우정현 학술상(전체): 심규원, 장종희, 박용구, 김홍동, 최중언, 김동석(연세대 세브란스병원)
Treatment modality for intractable epilepsy in hypothalamic hamartomatous lesions

5. 이인수 학술상(Young Neurosurgeon): 홍현중, 김영진, 이형중, 고용, 오석전, 김재민(한양대 구리병원)
Role of angiogenic growth factors and inflammatory cytokine on recurrence of chronic subdural hematoma
6. 가톨릭 인봉생(전제): 황선철, 임수빈, 김범태, 신원한(순천향대 부천병원)
Safe entry point for twist-drill craniostomy of a chronic subdural hematoma
7. 심보성 학술상(종양): 유현, 남병호, 양희석, 신상훈, 이진수, 이승훈(국립암센터)
Growth rates of metastatic brain tumors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8. 정환영 학술상(척추): 신동아, 이성, 윤도흠, 김궁년, 신현철(CHA의대 분당차병원)
Artificial disc replacement combined with fusion versus two-level fusion in cervical two-level disc disease
9. 임언 학술상(전체): 박경재, 강신혁, 채양석, 유미옥, 조태형, 서중근, 이훈갑, 정용구(고려대 안암병원)
Influence of interleukin-6 on the development of peritumoral brain edema in meningiomas

대한신경외과학회-하나은행 제휴 플래티늄카드 사용에 따른 학회 발전기금 적립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이미 하나은행과 하나비자 플래티늄카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여 플래티늄카드의 여러가지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대한신경외과학회 로고를 포함시켜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하였다. 이 카드는 계약 당시 회원들의 카드 이용 금액의 0.2%를 별도 적립하여 대한신경외과학회의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신경외과학회-하나은행 제휴카드 2009년 사용 액에 대한 학회 발전기금 13,446,536원이 2010년 2월 12일 학회로 입금되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사용실적에 따라 학회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

2010년 10월 14일(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 차기(2010-2011) 회장선출: 가톨릭의대 이상원 교수
- 전공의 수련규정 개정안이 통과 됨.
- 결산(2008.10-2009.9) 및 예산(2009.10-2010.9)안 심의 의결
- 인준 건
 - 명예회장 인준: 김승래(1990-91년도 회장, 1932.2.10생)
이제혁(1999-2000년도 회장, 1939.10.3생)
 - 국제학회파견대위원 인준
 - * 세계신경외과학회 대의원: 한대희, 김문찬, 최중언, 오석전, 이규성, 박정울
 - * 아시아대양주학회 대의원: 한대희, 김문찬, 최중언, 오석전, 이규성, 박정울
 - 개원의(의원) 상임이사 인준: 김문간(수락신경외과의원)
 - 별정직이사 인준: 박정울(학술지편집위원장), 김영준(교과서편찬위원장)
 - 신임이사 인준: 김태영, 신형진, 임승철, 박윤관, 박세혁, 성주경, 최기환, 김재휴, 김인수, 홍승관, 이무섭

상임이사 및 임원회

2009년 10월 13일(the Phoenix)

- * 상임이사/임원회의
- 국제학회파견대위원 선임 후 이사회에 상정 함.
 - 세계신경외과학회 대의원: 한대희, 김문찬, 최중언, 오석전, 이규성, 박정울
 - 아시아대양주학회 대의원: 한대희, 김문찬, 최중언, 오석전, 이규성, 박정울
- 전공의수련규정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사회에 상정 함.

제7조 3항

혈관계 수술례에서 동맥류나 동정맥기형에 대한 혈관내수술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주도한 경우에는 개방수술의 100%로 인정하고, 방사선과 전문의가 주도하고 신경외과 전공의가 assist 한 경우에는 50%로 인정하며, 신경외과 전공의 참여가 전혀 없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혈관내수술례 산정 시 개방수술례의 총수를 초과할 수 없고 모든 혈관내수술은 신경외과 전공의의 수술기록지가 있어야 한다.(기 개정) 동정맥기형이나 뇌종양에 대한 stereotactic radiosurgery는 동일질환 개방수술의 30%까지만 인정한다(이는 총대수술례 산정 및 20%의 종양과 혈관계수술의 대수술례 산정시에도 적용됨). (개정전: 뇌 및 척수 종양과 관혈적 혈관계 수술례) - 6월 상임이사회에서 보고함.

제7조 4항

수련기간 중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공의를 타 수련병원에 파견할 수 있다. 단, 파견은 수련병원에 한하며 수련기간 중 최대 4개월에 한하며 전공의 파견 시작일 15일 이전에 본 학회의 동의 및 병원신임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예에 한한다.

(개정전: '전반기 및 후반기 최대 2개월씩' 문구를 삭제함)

제8조 2항

수련실태조사는 상임전문의, 대수술례, 시술 및 기구, 비치도서 등에 대한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매년 8월 이전에 실시한다.(개정전: 2월)

부칙

1. 이 규정 개정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중 7조 3항 개정안에 따른 수술례 산정의 적용시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전공의 신규신청 병원, 증원신청 병원 그리고 기 인정 수련병원 모두 본 개정안을 적용 시행한다.)
- (개정전: 2. 이 규정 개정안에 따른 동맥류나 동정맥기형에 대한 혈관내수술례 산정의 적용시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전공의 수를 증원하는 병원에 대하여는 본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며 전공의를 신규로 신청하는 병원이나 기 인정된 수련병원도 본 개정안을 적용 시행한다.))

- 차기회장(2010-2011)후보 선출: 이상원(가톨릭대), 김현주(연세대 원주의대)
- 신임이사 추천: 김태영, 신형진, 임승철, 박윤관, 박세혁, 성주경, 최기환, 김재휴, 김인수, 홍승관, 이무섭
- 개원의(의원) 상임이사 추가 임명: 김문간(수락신경외과의원)
- 별정직이사 임명: 학술지편집위원장 박정울(고려대)
교과서편찬위원장 김영준(단국대)

2009년 11월 13일(학회 회관 대회의실)

- * 상임이사회
- 대한의학회 회원 인준 심사에 따른 관련학회 의견으로 대한신경손상학회(찬성),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반대), 대한치매학회(반대) 함
- 대한간질학회 - 간질 이름 바꾸기 프로젝트에 관하여 "개명 동의" 함
- 2010년 3월 초 미국 유타 주 디어밸리리조트에서 개최할 Winter Meeting 에 KANS와 KNS 공동 후원 용어사용 결정 함.
- 전공의 중간연차 영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전문의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복지부고시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에 한함.(복지부 고시, 병원신임위원회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 질의내용: 신경외과 2-4년차 전공의 결원 시 해당 T/O에 대해 다른 진료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인사를 중간 연차로 영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 신설: 특별이사 배학근 교수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9년도 학회학술활동지원사업 우수 학술지 선정

2009년 12월 11일(Cafe M-대치동 소재)

- * 상임이사/임원회의
- 전공의 정원신청 기준 변경을 위한 전공의 수련규정 개정 관하여 수련교육위원회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구체적인 안으로 재 논의하기로 함.
- XML 변환 비용 인상(편당 5만원에서 9만원)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의견대로 저자 100% 부담으로 결정 함.
- 2009년 12월 7일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Korean Neuro-intensive Care Society)발기인 대회를 가졌으며 진행방향에 대하여 설명함.

2010년 1월 14일(삼성서울병원 암센터)

- * 상임이사/임원회의
- 한국안센 - 2010년 2차 학술사업(Topamax) 연구제안을 받아 관련 학회조정이사 책임자로 진행하기로 함.
- 대한의학회(재)한독제책재단 연구지원금 신청서 제출: 의약학술부문 지원(분당서울대병원 윤상훈)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우수의료기술 선정을 위한 위원선정 및 심사요청
; 12월 29일(화) 전신수(가톨릭대), 김우경(가천의대) 교수가 심사 함.
- 2010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사업 추진과제 건 - 심사평가원에서는 예방적항생제 진료지침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심평원이 획득한 자료에 대하여 각 관련학회에서는 팀을 구성하여 재검토를 한 후 학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을 추진 함.

2010년 2월 18일(학회 회관 대회의실)

* 상임이사회

- JKNS 학술지 Manuscript Editor 사직에 따른 후속 조치(안)에 대하여 여러 안을 학술지편집위원장 보고하였고 당분간 출판사(ML) 편집 담당자와 학회 편집위원장이 일을 분담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음.
- 한국장기기증원에서 2010년 4월 2일 제1차 장기기증 세계화 포럼 개최 강의(공용 교수)
- 제1차 대한신경외과학회 통증보수교육 개최
- 주제: 급성 및 만성통증, 통증관련 신경차단 / 발통점주사 보수교육
- 일시: 2010. 3. 28(일) / - 장소: 한양대학교 HIT빌딩 6층 대강당

2009년 3월 12일(학회 회관 대회의실)

* 상임이사회

- 2010 SNS(Society of Neurological Surgeons) Annual Meeting 참석에 관하여 병원협회 신임위원회 수련교육이사를 맡고 계신 왕규창교수님이 SNS Annual Meeting에 다녀오신 후 학회에서 강의요청을 드리기로 함.(미국 전공의 교육에 대한 정보와 교류 창구 확보 목적이며 2010년 6월19일-22일 New Haven, CT에서 개최예정)
- 2010 전공의 1년차 대상 워크샵 개최에 대한 세부 보고가 있었음.
- 일시: 2010년 5월 8일(토) - 9(일) / - 장소: 미정

각 위원회 중요 활동 사항

총무위원회

- 대한의학회 2009년 정기보고서 제출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09년도 학술활동 실적 제출
- 한국연구재단 2009년 국제학술지발행 우수학술지 선정
- 학회 분당창고정리 하였고 현 학회사무실 지하 창고 임대(15,000원/월)
- 서초동 사무실 임대 계약 만료(2010.1.16)로 2년 재계약 함.
- JKNS 학술지 Manuscript Editor 전별금(400만원) 지급
- 2010년 탁상용 달력 제작 배포
- 2010년 제28차 춘계학술대회 준비 및 운영
(Gala Dinner시 명예회장, 고문, 만 65세 이상 원로회원 면제)
- 제1차 대한신경외과학회 통증 보수교육 개최
(2010.3.28, 한양대HIT 6층 대강당)

학술위원회

- 2010년 제28차 춘계학술대회 초록접수, 심사 및 프로그램 확정
- 2010년 제회 한-중 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 주최) 프로그램 확정
- 2010년도 신경외과 전공의 통합연수강좌 프로그램 확정

	날짜	장소	분과
1차	2010/9/4-5	한양대	척추, 외상, 말초
2차	2010/10/2-3	대전 을지대	종양, 소아
3차	2010/10/30-31	한양대	정위, 노인, 통증
4차	2010/11/6-7	대전 을지대	혈관, 혈관내

- 2010년 추계학술대회 외국인 초청연자 선정

- 2010년 5월 14일(금) - 18일(화) 제2회 한-터키 신경외과학술대회(터키 신경외과학회 주최) 프로그램 확정

고시위원회

- 제53회 전문의고시 1차 필기시험 사진문제 선정 완료
- 2009년 11월 25일(수) - 27일(금), 학회사무국 대회의실
(숙박: Ramada Hotel & Suites)
- 46문제(주관식 12, 객관식 34)
- 사진문제 인쇄일정(대한인쇄소, 2009년 12월 21(월) - 24(목)
- 고시이사, 고시간사 감독 및 최종검증
- 제53회 전문의고시 1차 필기시험 선택 작업
- 160문제(주관식40, 객관식120), 2010년 1월 3일(일) - 1월 7일(목), 양평 한화콘도
- 제53회 전문의고시 1차 필기시험(수험생 96명)
- 2010년 1월 7일(목) 9시 - 12시 20분(200분)
-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구. 강남성모병원) 의학연구소 1002호, 1003호
- 감독위원 6명, 고시위원장, 간사 관할 감독
- 제53회 전문의고시 1차 필기시험 채점
- 2010년 1월9일(토) 08시 - 18시, 팔레스 호텔 지하1층 공전홀 / 채점위원 6명, 고시위원장 관할감독
- 구술고시 시행
- 일시: 2010년 1월 15일(금) - 16일(토) 오전 8시
- 장소: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암센터(신관) 지하3층 PBL Room
- 구술고시 사정위원: 이사장, 회장, 차기이사장, 고시이사, 수련교육이사, 총무이사
- 2010년 제53회 신경외과 전문의 고시 결과
- 1차 필기시험: 96명 응시, 불합격 1명
- 2차 구술시험: 전원 합격, 최종합격 95명(98.95%)
- 2차 구술시험 분야별 점수(100점 만점)

종양	혈관	척추	소아/기능	외상/말초	총론/기초	평균
71.82	77.22	72.45	70.97	73.00	64.12	71.60

- 대한의사협회-2009년도 학회 사진문제은행 정리작업(자율시행)비 지원
: 2009.11.25-27, 학회사무실 시행
- 대한의사협회-2010년 제53회 전문의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 자율시행 학회 지원
- 대한의학회 - 전문의자격시험 전산화에 관한 설명회
(전문의고시 전산화 계획 발표자료 PPT)
: 이상원 고시이사, 신임 고시위원 허 룡 참석(2010. 02. 18)
- 대한의학회 '전문의자격시험 전산화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허 룡(CHA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추천

수련교육위원회

- 2009년 11월 11일 대한의학회 주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
- 전공의 업무시간 제한의 필요성 및 방안: 주 88시간 등
- 전공의 수련과정 단계별 평가의 필요성
- 현 인턴제도의 문제점 및 선택적 폐지안
- 전공의 수련제도에 대한 전공의 입장
- 2009년 1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 결정 2010년도 전공의 정원 승인 통보
- 1년차 112명, 2년차 111명, 3년차 101명, 4년차 95명
- 2009년 11월 25일 대한병원협회로부터 2009년 하반기 레지던트 임용등록자 명단 받음

- 후반기 1년차 레지던트 3명: 강릉아산병원 1명, 서울대병원 1명, 서울 아산병원 1명
- 전공의 정원 인(정원신청 기준 변경을 위한 전공의 수련규정 개정)에 관한 검토
 - 수련교육위원회 위원 의견 수렴 후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토의
 - 병원신임위원회에 내년도 전공의 정원 안에 대한 질의: 현재 전공의 가용 인력이 200명 이상 감소 예상되어 증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세부 계획은 6월에 개최될 병원신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될 예정임.
 - 신경외과학회의 전공의 정원 안에 대하여는 병원신임위원회 회의 내용을 참고로 하고 공청회를 통한 회원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장기적인 계획하에 준비할 예정임.

재무위원회

- 매월 수입 및 지출 결산 보고
- 정기예금 통장개설: 학회 통장 잔액 중 3억원에 대하여 정기예금(1년) 통장 개설 함
- 서초동 사무실 임대료 완납(기간: 2008.10 - 2009.11)

보험위원회

- Burr, Saw 등 절삭기구 치료재료 비용 산정 항목별 세부 행위명 별도보상 치료 재료 관련 절삭기구 행위 등재됨
- 뇌정위 방사선수술 수술 관련 보험급여 인정기준 개정
- * 전이성(속발성) 뇌종양
 - 현 행: 종양으로 인한 급성 뇌압 상승이 없는 경우
 - 수정 안: 종양으로 인한 급성 뇌압 상승이 없고, 병소의 개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 한방 물리치료급여화 저지를 위한 법적대응 방안에 대한 회신(대한 척추신경외과학회)

(제1안) - 행정소송[시행규칙 무효(또는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 시행규칙 무효(또는 취소) 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규칙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가처분)
- 약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의견조화에 대한 답변
- * 고시 예정 안: 아스피린을 일차 약으로 하고 다른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몇 가지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혈관내 수술학회의 반대 의견과 성명서를 의협에 전달함. 또한 이와 같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제의된 상 황에 대한 대한신경외과학회의 공식 입장을 심사평가원으로 전달함.
- 장애인 보장구 급여품목 확대 관련 자문 요청 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확대 검토 품목: 욕창예방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자세보조 용구(inner)
 - 자문 내용
 - : 타보장구 보다 우선 급여확대 필요성: 상기 보조 장비는 우선적으로 급여 확대가 시행되어야 할 품목으로 사료됨.
 - : 급여대상(적응증) 및 기준: 장애 1급 환자에 해당됨. 그 외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근거하여 보조 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환자
- 현행 척수 수술 수가 관련 의견요청 회신(심평원)
- 1) 척추고정술에 대하여
- * 현행 급여기준 중 개선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 A. 개선의 필요성: 개선이 필요하다.

B. 구체적인 개선안

- 추간판제거술, 척추경나사못수술,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 유합술 (PLIF & TLIF)을 동시에 수술한 경우: “자-49 추간판제거술 100%, 자-46 척추고정술50%, 후방추체유합술(항목을 신설해야 함) 50%,” 로 하여 각각의 수가를 산정함이 합리적 이라고 판단함.
- 척추고정술을 다분절에 시행할 때는 다분절에 대한 수가를 고려 해야 함.

2) 척추 또는 골반 골절 및 탈구의 관혈적정복수술에 대하여

* 개선 필요의견: 개선이 필요하다.

- 행위명 및 수가분류: 현행기준은 “자-59 척추 또는 골반골절 및 탈구의 관혈적정복술”로 되어있는데, 이를 전방접근법과 후방접근 법으로 따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전방접근법은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흉부외과나 외과의 도움으로 협진을 하여 접근하고 있는데, 이 러한 협진에 대한 수가 및 행위에 대한 수가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신DRG 2차 시범사업 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의협)

- 신 DRG 제도의 문제점 관련
 - : 현재 일산병원에서 진행중인 척추 고정수술에 대한 기초 자료 등 raw data를 제공받고 그 자료를 본 신경외과학회(산하 전문 분과인 척추신경외과)에서 그 자료를 분석하고 시행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한 후 추가적인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판단 할 수 있다.
- 신DRG 2차 시범사업을 위한 대상 질병군(82개) 항목 선정 관련
 - : 현재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추가적인 시범사업은 심평원에서 신 경외과 학회의 의견을 묻은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이미 정해놓 고 진행하는 일로, 가항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앞으로의 일체의 진행 과정에 참가하기 어려우며 자문교수단에 신경외과는 빠지 도록 하겠다.
- 불합리한 급여 기준 개선(심평원)
 - 각 분과 학회에 의견 수렴 중에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요청함.

국제교류위원회

2010 San Francisco CNS-KNS Joint Meeting 경과 보고

2010년 우리나라와의 합동 학술대회는 2009년 4월 당시 CNS President Elect인 Gerald E. Rodts가 대한신경외과학회에 제안하여 당시 KNS President Elect인 연세대학교 이규성교수와 2010년 합동학술대회를 준 비하고 있다.

2009년 9월 Boston 세계신경외과학회 기간 중 Saleem Abdulrauf, Christopher C. Getch, Annual Meeting Chair인 Ali R. Rezaei, Scientific Program Chair인 Russell R. Lonser 등 CNS의 임원과 KNS의 이규성 교수, 장진우교수가 회동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 CNS-KNS 합동 학술대회를 2010년 10월 16일(토)-21(목) San Francisco에서 개최한다.
- 합동학술대회는 1회성 행사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International Partnership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이다.
- CNS와 KNS는 전공의교육, International Membership과 Fellowship, 신경외과학의 평생 교육 등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유한다.
- 미국의 CNS는 대한신경외과학회가 향후 Korean Congress of Neurological Surgeons를 창립할 경우 미국 CNS의 경험을 토대로 조직과 KNS의 사업, 운영방안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이행한다.

- 미국 내에 거주하는 신경외과 의사들의 단체인 Korean-American Society of Neurological Surgeons도 CNS-KNS의 학술활동에 동참하도록 한다.

2010년 2월 현재 2010년 합동학술대회를 위해서 40여 session의 Seminar 주제를 선정하여 각 세미나에 초청 연자로 참여할 우리나라 신경외과 의사들을 선정하여 CNS Annual Meeting Committee에 전달하였다.

협약의 내용 중 중요 안건 첫 번째는 2010 합동학술대회 중 International Leadership Oration에 초청될 한국측 명사는 이윤우 삼성전자 상임 이사회의장을 선정하여 CNS에 통보한 상태이다. 둘째 안건은 전공의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CNS와 KNS가 협동으로 각각 5만불 정도의 Travel Award Fund를 모금하여 San Francisco 합동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Travel Award를 수여하기로 합의하였다.

* 2010년도 제1차 국제 교류위원회 1차 회의록

- 일시: 2010년 3월 25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대한신경외과학회 화관 대회의실
- 참석자: 이규성, 전영일, 윤영설, 장진우, 조용준, 윤승환, 박정률, 김승범 (이하 존칭생략)

토의 내용

- San Francisco 조인트 미팅 간 세미나 연자 확정
CNS 참가 발표자는 선정되어 개인적으로 메일 발송됨
CNS의 학술 프로그램은 Annual Meeting Committee에서 결정함
KNS에서는 연자 추천만 가능, 연자 교체 등 학술 프로그램은 CNS 고유 권한임
- 참가 비용 - 5만불 모금을 목표로 함
현재 4만불이 모였으며 1-2만불 더 모금 예정
- 삼성전자의 이윤우 부회장님 동반 CNS참가 결정
국제초청 특강은 2010년 10월 19일 화요일 11시부터 11시30분
- 국제교류위원들의 적극적인 2010년 CNS참가 독려
A. Abstract deadline엄수하여 초록 제출 요망
B. 전공의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Travel Awards(대상: 전공의)
C. 초록이 선택된 전공의에 한하여 왕복비행기편 제공 계획 중임

진료심의위원회

2009년 10월 21일부터 2010년 3월 23일까지 의뢰 및 회신 건수입니다.

의뢰건	회신건- 37
척추 - 6	
혈관 - 11	
외상 - 7	
종양 - 2	
소아 - 4	
말초 - 4	
통증 - 4	
기타 - 3	
합계 - 41	

* 바쁘신 중에도 복잡한 질의내용에 회신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진료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께도 의뢰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의료정책위원회

- 'e-news'를 통해 주 1회 중요 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소식 전달.
- 2009년 12월: 중앙 응급 의료센터 요청 사항인 '특성화 후보센터 등 의무기록 평가지표 의견 수렴' 내용 중 '응급 뇌 질환자에 대한 진료 적정성 평가'에 대한 학회의견을 뇌혈관외과 학회와 상의 하여 발송 하였음.
- 2009년 12월: 의협 요청 사항인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한 내부 TF team구성 위원 - 추천 간: 목포 한국병원장 류재광 회원 추천함
- 2010년 1월: '의 한방 협진제도'에 대한 학회의 의견 제출
- 2010 3월: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학회의견 제출(척추질환, 뇌혈관질환)

회원관리위원회

- * 2010년 제28차 춘계학술대회 친선 스포츠대회(골프, 테니스, 축구) 운영
 - 골프(일사: 4월 8일(목) 오전 7시 / 장소: ASIAD CC)
 - 테니스(일사: 4월 8일(목) 오전 9시 / 장소: 해운대 관광 테니스장)
 - 축구(일사: 4월 8일(목) 오전 9시 / 장소: 부산 사직구장)

특별위원회

- 2010년 춘계학술대회 학술상 13개 논문 접수하여 심사(포스터상 제외)

학술지편집위원회

- 학술지편집위원장 임기 3년에서 5년으로 변경(2009.10.14.이사회결정)
- 한국연구재단 2009년도 계속평가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지가 100점 만점에 93.5점으로 등재유지(2009.12.28)
- 신임 편집위원 위촉: 오창완, 권택현, 이선일, 심기범
- 2010년 전문의 자격 시험을 위한 전공의 4년차 논문(대한신경외과학회지: JKNS) 제출 기한을 심사 및 출판 일정을 고려하여 이미 공지한대로 2010년 4월 30일까지이며 제출된 논문은 신속하게 심사하여 채택 여부 부를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기로 함.

학회사편찬위원회

- 신경외과 50년사 발간 자료 수집 중

교육제도개혁위원회

- 2010 전공의 1년차 대상 워크샵 개최 확정
 - 대상: 2010년 선발된 신임 신경외과 전공의 1년차
 - 목적: 신경외과 소개, 교육 목표와 연차별 교육내용 제시, 신경외과 의사로서 자긍심과 연대감 고취 및 동년배 간의 유대강화
 - 일시: 2010년 5월 8일(토) - 9일(일)
(각 병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말을 선정)
 - 장소: 공무원연금공단 천안사릉 리조트(충남 천안시 소재)
(전국 각 병원에서의 접근성 및 교육, 숙박시설 사전답사 평가 후 결정)
 - 업무협조: 1년차 전공의의 참여여부는 각 수련병원 평가 시 참고항목 이 될 것이오니 주임교수, 과장님들께서는 신임 전공의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 부탁 드립니다.
 - 향후 일정: 세부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이메일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위원회

- 2009년도 제 6차 경쟁력강화위원회
(2009년 12월 2일(수) 19시, 학회회관 건물 지하 1층 해운)
 - 보수교육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 분과학회, 지회 및 개원의 협의회에서 보내온 참여 주제 및 참여 주제 별 추천 받은 대표자 확인.
 - 개별보수교육위원회는 7개로 조직 운영하기로 함.
- 2009년도 제7차 경쟁력강화위원회(2009년 12월 15일(화) 19시, 학회회관 대회의실)
개별 및 통합보수교육위원회 구체적 및 단계적 운용 계획 건의하기로 함.
- 2010년도 제 1차 경쟁력강화간담회(2010년 1월 6일(수) 16시, 학회회관 대회의실)
 - 신경외과학회 정회원과 준회원을 주 교육 대상으로 보수교육 진행하기로 하며 교육 일시는 일요일을 우선으로 한다. 제2차 보수교육부터 지회와 협력하여 순회 교육을 할 수 있다.
 - 통합보수교육위원회와 개별보수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보수교육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함.
- 2010년도 제1차 통합보수교육위원회(2010년 2월 3일(수) 17시, 학회회관 대회의실)

- 통합 및 개별 보수교육위원회 소개 및 출범
- 개별보수교육위원회 진행보고
(급성 및 만성 통증 통증관련 신경차단/발통점주사, 치매, 허혈성 뇌졸중 보수교육 순서로 금년도 보수 교육 시행 결정)
- 대내외적 보수교육 홍보 및 참여 독려하기로 함.
- 2010년도 제1차 경쟁력강화위원회(2010년 2월 17일(수) 19시, 학회회관 대회의실)
 - 2010년 3월 28일(일) 한양대학교 HIT빌딩 6층 대강당에서 시행 예정인 급성 및 만성 통증, 통증 관련 신경차단 / 발통점주사 보수교육 세부 진행 논의.
- 2010년도 제2차 경쟁력강화위원회(2010년 3월 22일(월) 18시, 학회회관 대회의실)
2010년 8월 29일(일) 한양대학교 HIT빌딩 6층 대강당(장소 안)에서 치매보수교육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치매보수교육위원회 활성화 및 로드맵 진행하기로 함.
- 2010년도 대한신경외과학회 통증 보수교육 실시
급성 및 만성 통증, 통증 관련 신경차단 / 발통점 주사 보수교육
2010년 3월 28일(일), 한양대학교 HIT빌딩 6층 대강당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 조직위원회 보고

1. 회의 운영 준비

◎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 정례화

가. 운영위원회

-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 및 방향성 협의
- 격월로 개최되며 현재까지 총 9회 운영 됨

나. 학술위원회

- 학술 준비를 위한 전자 대회 분석 및 WFNS2013 학술 방향성 논의
- 격월로 개최되며 현재까지 총 3회 운영

다. 실무위원회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실무 운영 지침 논의
- 2011년부터 본격적인 운영 예정
- 현재까지 총 1회 운영 됨

라. 전체회의

- 조직위원회 전체 회의로 운영위원회 및 기타 분과위원회의 업무 보고 및 최종 승인 주최
- 연 2회 개최 예정이며 현재까지 총 2회 운영 됨

◎ 공식 대행사 선정

- 총 4개 업체 대상 공식 대행사 선정 PT 요청
- 유치업무를 진행해 왔던 더플랜(대표:이주현)&코엑스(대표: 배병관) 컨소시엄이 공식 대행사로 선정됨

2. WFNS Administrative Council Meeting 참석

◎ 일자 및 장소: 2010년 2월 26일~27일, 스위스 니온

◎ 참석자

: P. Black(President), J. Brotschi(Past President), H.W. Jung (President, XV Congress), T. Kawase(1st VP), H. Azevedo-Filho (Secretary), B. Misra(Ass. Secretary), M. Arraez(Treasurer), C. Loftus(Ass. Treasurer)

◎ 연회 개최되는 WFNS 최고 의사 결정 회의

◎ 주요 논의 사항

- WFNS2009 결과 보고(R. Heros, President of 14th WFNS Congress)
 - 정산 결과 적자 발생하였으나 WFNS에 약정한 US\$250,000 후원함
- 각 임원들 업무 보고(해당 임원)
- WFNS2013 준비 현황 보고(정희원, President of 15th WFNS Congress)
 - 대회 일자 확장: 2010년 9월 8일(일)~13일(금)
- WFNS Secretary 보고(H. Azevedo-Filho)
 - 2011년 WFNS Interim Meeting 준비 보고
 - 2017년 WFNS World Congress Bidding 현황 보고
 - :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터키, 영국, 스페인, 체코(현재 6개국 신청)

3. 2011년 WFNS Interim Meeting

◎ 일자: 2011년 9월 14일(수)~17일(토)

◎ 장소: Reclife, Brazil

◎ 웹사이트: www.wfnsinterimmeeting2011.com.br

◎ 주요 안건

- 2017년 WFNS World Congress 개최지 선정

4. 신규 홈페이지 Open

◎ <http://www.wfns2013.org>





대한소아신경외과학회

- 2009년 5월 대한 소아 신경외과학회장 선출되신 성균관대학 신형진 회장의 초청으로 2009년 7월 10일 소아 신경외과 학회 발전에 도움을 주신 원로 교수님 16분을 모시고 친선 모임을 가졌다.
- 소아 뇌질환에 대한 회원들간의 학문적인 이해를 높이고,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아뇌질환 증례 토론회가 두차례 있었다. 첫 모임은 부산대 이상원 교수님 초청으로 2009년 9월 4-5일 양일간 부산대 양산 어린이 병원을 축하하는 대한 소아 신경외과학회 증례 토론회 및 친선 운동 대회에 양산 병원에서 개최되어 10대학에서 참석하고 8 증례가 발표 되어 뜨거운 토론이 진행 되었다. 2009년 11월 27-28 일에는 제주대 심기범 선생님의 초청으로 김동호 선생님께서 제공한 호젓한 제주 하바나 펜션에서 증례 토론회를 가졌다.
- 다학제간 학문 교류를 주도하는 본 학회는 2010.1.29 대한 소아 뇌종양학회와 함께 하는 동계 workshop을 주최하고 서울 성모 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update of treatment of Glioma" 라는 주제로 다양한 치료법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장과 6개의 소아 신경외과 증례를 통해 소아 혈액 종양학과, 소아 정신과, 심리학자, 방사선 종양학과, 소아 신경외과 등 다양한 학과에서의 접근법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 국제화를 선도하는 대한 소아 신경외과학회는 2009년 5월 무주 리조트에서 가진 정기 학술대회에서 일본-한국 소아 신경외과 국제 symposium을 시작으로, 2009년 10월 8-16일 미국 파사데나에서 진행한 세계 소아신경외과 학회에서는 대한 소아 신경외과 회원 17명이 참석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11월의 인도-한국 국제 symposium을 가졌다. 2010년 세계 소아신경외과 학술대회를 유치한 본 학회는 보다 확고한 국제화를 위해 2010년 4월 유럽 소아신경외과의 국제 symposium, 2010년 6월 일본 소아 신경외과의 국제 symposium, 2010년 11월 인도 소아 신경외과의 국제 symposium에 초청을 받은 상태로 많은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2009년 11월 14일 서울 삼성 병원에서 시행한 전공의 연수 강좌에는 100여명 이상의 전공의와 13명의 연자가 참석하여 전문의 양성을 위한 좋은 강의를 들었다.
- 2010년 5월 7일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있을 대한소아 신경외과 정기 학술대회는 소아 신경외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서울대 조병규 선생님의 퇴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로 준비 중이다. 일본의 Mami Yamasaki 교수와 터키의 Mutluer 교수를 초청하였다.
- 본 학회는 소아신경외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상을 마련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최준연 교수님과 연세대학교 동문이 마련한 500만원의 기금으로 마련한 연세우원학술상은 매년 당해년도에 발간된 논문 중 최고의 논문을 을 심사하여 시상(상장과 부상 200만원)하며, Medtronic 젊은 연구자상은 향후 소아신경외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40세 미만 회원 중 상임 이사의 추천을 받아 논문 성적, 학술 활동, 학회 기여도 등을 상임이사회에서 선정하며, 선정된 분은 해외에서 개최하는 ISPN 참석을 지원받는 영광을 누린다. Codman 학술상은 당해 학술 대회에서 최고의

oral presentation 을 하였던 분과 poster presentation을 특별 이사의 심사로 선정되며, 각각 상장과 부상 100만원을 시상한다.

•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친 소아신경외과 교과서가 곧 출간될 예정이다. 간행 이사 박정율선생님의 열정으로 대부분의 원고가 접수되어 마지막 review 중이며, 2010년 추계학회에서 새로운 교과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

임원진

회 장: 홍승철
부 회 장: 주진양(연세대)
총 무: 김재민(한양대)
학 술: 허필우(가톨릭대)
간 행: 오창완(서울대)
기획-홍보: 김범태(순천향대)
정보-통계: 박익성(가톨릭대)
보험-진료: 박현선(인하대)
재 무: 정영균(인제대)
회원관리: 김태선(전남대)
역사편찬: 임동준(고려대)
교과서편찬: 배학근(순천향대)
회칙개정: 강성돈(원광대)
수련교육: 성재훈(가톨릭대)
간 사: 안재성(울산대)
감 사: 김종수(성균관대), 고현송(충남대)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1. 노인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 개최

2010년 3월 7일에 노인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3차 치매연수교육이 중앙대학병원(흑석동 소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노인질환에 관련된 연제발표뿐만 아니라 대한노인병학회와 공동으로 노인성 요통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합동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합동심포지움에서는 대한노인병학회의 이영수 이사장님, 김돈규 교수(중앙대 재활의학과), 이은주 교수(울산대 노인내과)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으며 고령 척추 환자의 마취에 대하여는 대한정맥마취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최영규 교수(경희대 마취통증의학과)께서 초청연자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에 대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수교육을 개최하여 치매척도검사 및 치료방법에 대한 연수교육을 시행하여 회원들께 이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학회 중 열린 정기 총회에서 임영진교수(경희대)가 노인신경외과학회의 회장으로 재선되었습니다.

2. 2010년도 노인신경외과학회 상임운영위원 명단(임기: 2010.03-2011.02)

회 장: 임영진(경희의료원)
부 회 장: 나형균(가톨릭의대 성모병원)
부 회 장: 김영백(중앙대학병원)
감 사: 김문건(수락신경외과의원)
학 술: 최창화(부산대학병원)
총 무: 김성호(영남대학병원)
간 행: 조 준(건국대학병원)
기획홍보: 장진우(연세의료대 세브란스병원)
재 무: 최천석(성균관의료대 강북삼성병원)
회원관리: 정 신(전남대학병원)

보 함: 이영배(동국대 경주병원)
 수련교육: 이형중(한양대 서울병원)
 개 원 의: 윤강준(강남베드로병원)
 특별이사: 이 언(가천대길병원)
 특별이사: 성주경(경북대학병원)
 특별이사: 박정율(고려의대 안산병원)

대구·경북지회

임원 개선 명단

회 장: 강동기(대구파티마병원)
 총무이사: 김인수(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학술이사: 황정현(경북대학교병원)
 재무이사: 김성호(영남대학교)
 회원관리: 김대현(대구가톨릭대학병원)
 기획이사: 정을수(보강병원)
 보험이사: 김상근(남산병원)
 윤리이사: 손은익(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홍보이사: 이해철(포항의료원)
 회칙이사: 권성오(차의과대학부속 구미차병원)
 전산정보이사: 이병준(안동병원)
 특별이사: 여성우(세동병원)
 법제이사: 이규춘(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감 사: 최은석(참조은병원)
 박재천(경북대학교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뇌건강센터 JCI 인증획득 - 부소장 신경외과 김우경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1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달 JCI 인증을 획득하여 해외환자 유치의 발판을 마련했다.(2010.02.12)

가톨릭대

◆ 가톨릭의대 신경외과학교실

1. 서울성모병원 척추센터(센터장 신경외과 박춘근)는 지난 11월 21일 서울성모병원 별관 2층 강당과 수술실에서 약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성모병원 척추센터 개소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 척추외과의사들뿐 아니라 10여명의 해외 척추 외과의들(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각 1명, 태국 4명, 대만 3명)도 참석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강의와 Live Surgery를 통하여 척추 기구 고정수술에서 O-Arm 영상 시스템과 연동되는 실시간 navigation system 적용의 실재를 구현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서울성모병원 척추센터는 이와 같이 척추수술의 신기술과 관련된 국제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2. 가톨릭의대 신경외과학교실은(주임교수 박춘근) 지난 12월 12일(토) 메리어트 호텔에서 교실 동문회 주최로 2009년 송년회를 최창락, 강준기 명예교수 등 원로교수를 포함한 약 75명의 교실 교원들과 원외 동문 및 일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학술상 수상자

- 1) 남천학술상(명지성모병원 허준웅 원장 수여) [뇌분야]
 - 양승호 조교수(성빈센트병원), 정준호 임상강사(서울성모병원)
- 2) Leon Wiltse Award(수원 윌스기념병원 수여) [척추분야]
 - 류경식 부교수(서울성모병원)

※ 우수전공의 수상자

- 1) 주임교수상 - 3년차 원태연(청주성모병원)
- 2) 단송 강준기상 - 3년차 장상훈(의정부성모병원)
- 3) 동문회장상 - 2년차 최진규(부천성모병원)
 (특히 금년부터는 단송 강준기상이 제정되어 선정된 전공의에게 신형 노트북이 수여되었다.)

3. 가톨릭의대 신경외과학교실은 지난 1월 23 - 24일 양일간 휘닉스파크에서 제 2회 한일 4개 대학(가톨릭대, 연세대, Nihon University, Keio University) 친선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각 분과별 연제발표 및 정년퇴임을 앞둔 Kawase Takeshi(Keio University) 교수의 특별강연 등 성공리에 마쳤으며 앞으로 한일 신경외과학회의 친교 및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4. 가톨릭의대 신경외과학교실은 지난 2월 6일 서울성모병원 지하층 대강당에서 약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th Catholic International Neurosurgery Update'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네번째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으로 뇌종양, 소아신경외과, 기능적 신경외과 및 척추외과 등 각 분야별로 주제를 정하여 미국, 일본, 터키에서 초청된 5명의 해외 연자와 10명의 국내 연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신경외과학교실에서는 이와 같은 International Update를 매년 개최하여 신경외과 각 분야의 최신지견을 국내에 보급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 CMC 승진교원 및 신규스텝

1. 승진 교원 명단 - 2010년 4월 발령

- 부교수 → 교수

: 여의도성모병원 박해관, 의정부성모병원 유도성, 성바오로병원 지 철

- 조교수 → 부교수

: 부천성모병원 김성림, 인천성모병원 한영민

2. 신규 스텝 명단

임상조교수 - 인천성모병원 윤완수, 대전성모병원 여인성

순천향대 부천병원

1. 2009 "전공의를 위한 신경해부학 강좌"가 2009년 12월 6일 순천향 대학교 부천병원 순의홀에서 전국의 전공의들의 열띤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994년 본 강좌가 개설될 당시 10명에서 시작했으나 15년 이상 지난 금번 강좌에는 100여명의 전공의 들이 참석했다. 내용은 gross anatomy 외에 imaging, endovascular anatomy를 비롯한 수술해부학과 안 이비인후과 영역의 기능적 해부학분야까지 강의가 진행되었다.
2. 2009년 12월10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외과 송년회 행사가 있었다. 교실원, 전공의 및 병동 간호사들과 함께 저녁식사, 장기자랑, 퀴즈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자리였다(사진).



3. 2009년 12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순천향대학교 해부학교실에서 cadaver workshop이 개최되었으며, 천안병원과 서울병원에서 참여한 교수, 전공의들과 함께 endoscopic pituitary, petrous bone, cervical spine 실습에 참여하여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모임이었다.
4. 2010년 1월 1일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학교실 신년하례식이 한식당 '수라온'에서 개최 되었다. 본 대학 초대 주임 교수님인 이인수 교수님 이하 순천향의료원 4개 병원에서 교수, 전공의 및 졸업동문들이 한데 모여서 한 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덕담을 주고 받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영남대

제14회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2010 Recent Advances in Myelopathy

일 사: 2010년 2월 20일(토) 오후1시 - 5시30분

장 소: 영남대학교병원 이산대강당

인제대 상계백병원

신경외과학교실 창립 20주년 기념 서울 동북부 신경외과 심포지움 (2009.11.11, 본원 17층 강당)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2010년 3월 2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이 개원하면서 신경외과학교실이 창설되었다.

- 교수진: 이선일(주임교수 및 과장) - 전 인제대 부산백병원
주상욱(전 인제대 부산백병원) - 뇌혈관 수술
김해유(전 신촌 세브란스병원) - 뇌정위, 외상
진성철(전 분당서울대병원) - 뇌혈관 중재술
김훈(전 신촌 세브란스병원) - 척추

- 감마나이프 퍼펙션 도입- 2010년 6월 가동 예정

◎ 연락처

병원대표: 051-703-0433

신경외과 외래: 051-797-2090 / 신경외과 외국: 051-797-0840

경북대

대구광역시의회 학술상 수상

2010년 3월 25일 경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박재찬 교수가 대구광역시 의사회가 주관하는 학술상을 수여하였다.

박재찬 교수는 2009년 한 해 동안 "Olfactory dysfunction after ipsilateral and contralateral pterional approaches for cerebral aneurysms"을 비롯한 두 편의 논문을 해당 학문 분야 최고지인 "Neurosurgery"에, 그 외 Journal of Neurosurgery와 Surgical Neurology 등 국제적인 논문지에 5편의 논문을 제 1저자로 발표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인정받아 본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사진설명: 우측 첫 번째 박재찬 교수)

순천향대 변박장 교수님 정년퇴임

지난 2월 20일 변박장 교수님의 정년퇴임 기념 만찬이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학교실 동문회의 주최로 방배동 함지박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평소 검소한 정년 퇴임을 바라셨던 교수님의 뜻에 따라 교수님 가족, 신경외과학교실 동문, 병원 및 의료계의 지인 등 약 80명이 참석하여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변박장 교수님은 퇴임인사에서 그동안의 35년간의 재직기간을 회고하시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순천향대학교 병원장 및 중앙의료원장 등의 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맞게 되도록 도와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제에 대해 말씀하시며,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의리를 베풀고 진정한 사랑과 베품의 의술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남기셨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통해 신경외과 및 의료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시어 후배와 제자들이 큰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소평(小平) 변박장 교수 퇴임연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학교실/순신회 2010.2.27



조 병 규 | 서울의대 교수

존 경하는 동창회 회장님, 명예교수님, 의대 임정기 학장님, 병원 성상철 병원장님, 그리고 동료 후배 교수님 여러분, 이렇게 성대한 정년퇴임연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든 모교를 떠난다 생각하니 허전함을 느끼나, 한편 든든한 후배들을 믿고 물려설 수 있어 마음 가볍고, 어려웠던 책무를 내려놓을 수 있어 해방감도 느낍니다.

교수로서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도 흐뭇한 일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환자진료와 연구에 더하여 우수한 학생들의 장래를 지도해야 할 책무가 항상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전문 지식인, 지성인, 엘리트(선비, 군자, 덕을 갖춘 사람)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추기 위하여 부단한 자기성찰과 낮춤의 자세를 닦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논어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 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경지의 덕과 인품을 갖추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천하의 영재들을 가르치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곧 배움이기도 하였습니

다. 어제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3000-meter 계주는 여러가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먼저 주자가 후발주자를 밀어 속도를 붙이는 장면은 우리 학문분야의 발전 양상과도 같았습니다.

본인은 평소 모든 후배교수가 靑出於藍 靑於藍(푸른 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 비유)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후학은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선배의 업적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기에서 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충돌을 어떻게 가릴수 있는가의 숙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만. 이는 교수의 연구논문, 저작, 출판의 윤리성 준수에 비유되겠습니다. 또한 공통의 연구주제에 다학제연구시 전문분야 부분 부분의 연구가 철저해야 할 뿐 아니라 공동의 협력이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학-의료란 단순한 과학만은 아닙니다. 과학적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나이가 사회적 의료요구와 국가적 보건 복지 목표에 부응하여야 하는 책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학사회에 안주할 수 있었던 우리는 사회, 국가로부터 가장 혜택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학문분야에 정진하면서, 환자의 요구, 빈곤과 의료, 생명윤리와 의료, 국경을 넘는 인류의 질병퇴치와 의사의 사명, 등에도 같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환자사랑과 봉사의 삶이 동시에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대는 지난 반세기 동안 황무지를 일군 선배 교수님들과 우수한 학생들의 의욕과 열정으로 지금의 우리 학교-병원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한편, 의료정보의 폭주와 생명과학의 발전은 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대학과 병원은 2017년 세계 10위권 진입의 비전으로 모두가 목표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업이 이제 여러 후배 교수님들의 어깨에 매여 있습니다. 변변한 주춧돌도 마련 못하고 떠나는 이 사람을 닮지 말고, 훌륭한 업적으로 후배에게 멋진 유산을 남기며 떠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했던 모든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고도 갚지 못하고, 떠나게되는 본인을 용서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앞날과 가정에 행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 선 길 |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교수

1974년 3월 2일 베트남전쟁터에서 귀국하여 새까만 얼굴에 작달막한 키의 젊은 청년의사의 사회 인생이 시작되어 36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전공의 시절 72시간동안 한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환자에 매여 있기도 하였고, 계속적인 뇌혈관검사와 척수 방사선검사로 백혈구 1,000대의 백혈구감소증이 확인되어 의사의 계속성 여부를 고민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서 한 신경외과의 매력에 빠져 불철주야 환자를 보면서도 논문 쓰는데 게을리 하지 않아 한림대 의료원의 전신인 성심유지재단 의료원 주최 제1회 학술대회에서 1등으로 이사장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된 1979년 저의 선택권과는 무관하게 은사이신 고 강성구 교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한강성심병원에 부임한지 31년이 흘러갔습니다.

교수 재직 중 10년간의 병원 수련교육부장, 14년간의 신경외과장, 그리고 진료부원장, 의료원 수련교육부장, 보험위원장, 위탁연구위원장, 전직교수유대강화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병원 행정을 배우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칙론을 주장하고 실행하여 주위에서 “면도칼”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36년 전 본관의 200여 병상과 직원 200여명이었던 한강성심병원은 2개의 대학과 5개의 병원에 약 3,300병상과 5,600명의 직원이 있는 거대 의료원으로 성장하여 대한민국 굴지의 의료재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36년 살아온 이 곳에 저의 조그마한 벽돌 한 장이라도 깔려 있다는 소박한 자부심을 가져 봅니다.

한강성심병원은 20대 청년에서 60대 노인이 될 때까지 저에게 직장을 주어 자식들을 낳아 공부하고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의 모든 자본금의 원천이 되어 준 보금자리요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의료원과 저 개인의 엄청난 성장 속에서도 현실사회는 우리 병원 가족들을 편안하고 안주하게 그냥 두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병상 수를 줄이고 직원을 감축하는 막다른 데 까지 도달하여 모든 직원에게 걱정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이 사실일진데 이 병원에서 가장 오래 있었다는 저의 책임 또한 막대하다고 생각되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강성심병원은 어려운 위기일 때 항상 이겨내는 끈기와 저력이 있음으로 원장님과 전 직원이 똘똘 뭉쳐



서 합심한다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옛날의 풍성했던 한강성심병원을 만들어 멀리서 보는 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36년간 몸을 담아왔고 정년이 6개월이 남아 있는 저는 이제 이곳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창원병원장으로 임명되어 3월 2일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 아직 건강이 허락하여 좀 더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누려 왔던 국가 사회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뭔가 베풀 수 있는 길을 찾아 욕심 없이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서 대학 및 병원과의 관계는 영원히 유지될 것입니다.

항상 저에게 사랑을 주기만 하신 윤대원 이사장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병원장과 오랜 세월동안 저를 도와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강성심병원과 의료원의 모든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 자식 같은 수술 도구들이죠.”

김 범 태 |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군 의관을 마친 후 대학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수술을 배우고 있던 중,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IMF가 터지고 병원도 어려운데 나몰라라 값비싼 수술도구를 사들이기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만들어보자 싶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주사기를 이용한 미세수술칼, 국자를 변형한 두개골 성형기구들 말입니다. 2000년 미국과 2004년 일본연수를 통해 뇌혈관수술과 뇌혈관내치료에 대해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후 비침습적 수술용 드릴, 미세혈관수술과 뇌혈관내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수술침대, 뇌혈관 색전감시장치 등을 만들어서 환자치료에 유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시간 날 때마다 주사바늘 가지러 다니고, 근처 시장에서 국자도 사오고 하며 부품상을 헤매고 다녔죠. 도면 들고 자재실 직원들에게 조언 듣느라 발품도 많이 팔았습니다. 짧게는 한달, 길게는 일 년 가까이 걸쳐 만든 도구들이예요. 보세요, 내 자식같이 소중한 수술 도구들이입니다(사진, 청년의사 제공).

어려운 환경과 그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를 임상에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생각,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0년 이상 수술도구를 만들어왔던 힘은 “새로운 발명과 발견”하여 환자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즐거움과 주변사람들의 도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동정

보직변경

박관웅 순천향대 부천병원 조교수 발령(2010.3.1)
 김무성 인제대 부산백병원 책임교수 발령(2010.3.1)
 이선일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신경외과 과장 및 주임교수, 기획실장 발령(2010.3.1)
 김상우 영남대병원 부교수 발령(2010.3.1)
 김기욱 동아대 신경외과 주임교수 및 과장 발령(2010.3.1)
 - 휴대폰 번호 변경: 010-2560-5823
 박석규 순천향대 서울병원 부교수 발령(2010.3.2)
 강동훈 경북대 영상의학과 전임강사로 발령(2010.3.2)
 김진기 부산성모병원 진료부원장 취임(2010.1.1)
 박동혁 고려대 안암병원 조교수 임용(2010. 3.1)
 신형식 인제대 상계백병원 과장 발령
 조기홍 아주대병원 제1진료부원장 취임

* 부산대병원

최창화 심뇌혈관센터 소장 및 국가지정권역 심뇌혈관 유지 추진단장 보임
 차승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보임(2010.3.1)
 이재일 임상조교수 발령(2010.3.1)
 서영준 전임의사 발령(2010.5.1)

* 양산부산대병원

이상원 과장 보임(2010.2.23)
 김성훈 임상조교수 발령(2010.3.1)
 김호상 전임의사 발령(2010.3.1)

근무지변경

한윤경 - 메트로 병원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342-105
 - Tel. 031-467-9062, Fax. 031-467-9888

박진우: 경북대 임상교수에서 대구 참좋은병원 신경외과 과장(2010.3.2)

양문술: 연세대에서 한양대 구리병원

천세명: 조앤조병원에서 연세 SK 병원 신경외과

-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2-5번지, Tel. 515-1191

이근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인제대 부산백병원

진용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인제대 서울백병원 조교수(2010.3.1)

변박장: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년퇴임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발령(2010.4.1)

조병규: 서울대병원 정년퇴임 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직(2010.3.2)

최선갈: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정년퇴임 후 한국산재의료원 창원병원장 취임(2010.3.2)

해외연수

임수빈(순천향대 부천병원)

- 미국 Seattle의 University of Washington(UW)에서 neural interface에 대한 연구로 1년간의 장기연수를 마치고 귀국. 2010년 2월 1일부터 진료를 재개.

김재용(분당 서울대)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UCSF) Medical Center (2009.3.1~2010.2. 28)

- 연수분야(신경교종의 수술적 치료 및 brain mapping)

박동혁(고려대)

- University of South Florida, Center for Aging and Brain Repair (USA): 2008.1 ~ 2010.1.30

김상돈(가톨릭대 성가병원)

- Baylor College Medicine, Texas(USA): 2008.8 ~ 2010. 2

이태규(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 Mayo Clinic(USA): 2008.9 ~ 2010.2

회원경조사

변박장(순천향대) 퇴임식(2010.2.27)

조병규(서울대) 퇴임식(2010.3.6)

함인석(경북대) 장녀 결혼(2009.11.21)

지용철(대구보강병원) 모친상(2009.12.22)

유승호(인제대) 결혼(2010.2.6)

김재용(분당서울대) 부친상(2010.1.13)



대한신경외과학회

2010

전문의 시험 자격을 위한 전공의 논문 제출 기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4년차 전공의의 전문의 시험 제출용 논문 접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1. 현재 접수되는 논문 수와 심사 기간, 게재까지의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반드시 접수 기한을 준수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 기한은 **2010년 4월 30일** 입니다. 이후 4년차 전공의의 전문의 시험 제출용 논문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3. 기한 내 제출된 4년차 전공의의 전문의 시험 제출용 논문의 채택 여부는 신속하게 결정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편집위원장 박 정 울



Photo Report

The 49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 1. 이사회
- 2.~3. 전야제



- 4. 환영사-회장 윤일규
- 5. 개회사-이사장 오석전
- 6. 취임식-회장 이동열



Photo Report



07. 해외 초청연자 Peter M. Black (WFNS 회장)
08. 초청강연(소설가 조정래)
09. 총회





- 10. 만찬
- 11. 만찬 공연
- 12. 학회를 마치며



Photo Report



2010년 제53회 전문의 자격시험 구술위원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2010.1.16)

13. 제1차 한·중신경외과학회 교류를 위한 협정식(중국, 南昌)

14. 제53차 전문의고시를 마치고(2010.1.16)

급성 및 만성통증, 통증관련 신경차단/발통점 주사
보수교육 강좌(2010년 3월 28일(일) /한양대 HIT빌딩 6층 대강당)



15. 강연장 모습
16. 보수교육을 마치며